

파콰의 『신병모집관』에 나타난 명예혁명 후 상속녀의 생존전략: 실비아의 남장과 한계를 중심으로*

서영윤

I

1688년 명예혁명은 가톨릭교도 제임스 2세(James II)를 폐위하고 프로테스탄트인 윌리엄 3세(William III)와 메리 2세(Mary II)를 등극시켜 종교적, 도덕적 정화운동을 펼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평을 전도시킨 혁명이었다. 명예혁명 이후 권력의 축은 왕실에서 의회로 넘어갔다. 혈통에 근거한 귀족계급에 의한 통치가 금권에 의한 통치에 무릎을 꿇었고, 토지소유에서 나오는 전통적 재산과 새로운 비즈니스로 창출되는 자본을 혼용하는 신흥 자산계급은 전시대 궁중 엘리트들과는 다른 세계관과 기호를 지녔다(Combe 298). 신흥계급은 궁정 중심의 상류 귀족계급이 내세우는 혈통에 토대를 둔 봉건적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반면 개인이 후천적으로 습득하거나 고양시킬 수 있는 돈, 사랑에 기반한 결혼, 도덕 등의 덕목에 가치를 두고 선호하였다.

명예혁명으로 인한 선왕의 폐위와 공동 국왕의 왕위 승계는 영국 지배계급 스스로 통치권이 신에 의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인간들 간 약속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에 근거한 신탁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명예혁명의 결과물인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은 군주와 국민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고,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의 기본권을 피력한 의회제정법이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독립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지만 국가를 이루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상호 계약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국가 주권자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한 존 로크(John Locke)의 사회계약설이다(198).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로크의 이론이 명예혁명 이후 새롭게 조망된 권력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면, 1698년 제레미 콜리어(Jeremy Collier)가 발표한 『영국 무대의 부도덕과 불경에 대한 소견』(*A Short View of the Immorality and Profaneness of the English Stage*)은 윤리적 측면에서 변화된 가치를 드러내었다. 콜리어는 이 글에서 전시대 왕정복고기 희극의 신성모독과 부도덕성을 신랄히 비판하며, 연극의 직무는 미덕을 권고하고 악덕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391). 콜리어의 글은 당시 경제력을 무기로 부상하던 신흥계급의 귀족취향 희극에 대한 반감과 결합하여 희극에 대한 도덕적 담론을 더욱 촉발시켰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사회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혈통 위주의 위계질서에 기반한 기존 귀족계급 주도의 세계관을 와해시키는데 기여했다면, 콜리어의 글은 신흥계급의 종교적, 도덕적 감수성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크의 만인의 자기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당대 영국인들에게 보편적 인간 평등에의 요구를 위한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성적 차이에 의한 위계는 여전히 존재했고, 전 시대 희극의 부도덕성을 비난한 콜리어의 도덕 논쟁에서도 정조와 순종을 여성 최고 미덕으로 요구한 반면 난봉꾼 남성은 반성과 참회를 통해 도덕적 변신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될 뿐이었다(Rosenthal 94). 따라서 남녀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둘 다 본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에는 별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정 내의 가부장적 위계 역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조지 파퀴(George Farquhar)는 왕정복고 후에 출생하였고, “따뜻하게 추억되는 예술계, 특히 연극에 대한 찰스 2세 왕실의 후원 시절”(the fondly remembered days of Charles II's extensive royal patronage of the arts, and in

particular the theatre; Bull 431)은 이미 옛이야기가 된 명예혁명 이후에 극작활동을 시작했다. 명예혁명 이후 상류층의 재정지원이 거의 끊겨 직업 극작가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너무 적었던 상황에서 큰 재산이 없었던 파퓌는 자신의 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시장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헨리 텐 에익 페리(Henry Ten Eyck Perry)의 비평에서처럼 파퓌에 대한 20세기 초반 평가는 전형적인 왕정복고기 희극과 18세기 감상극을 연결하는 극작가로 간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108). 로라 브라운(Laura Brown)의 말대로 파퓌는 과도기적인 작가로 보일 수도 있다(135). 그의 극이 왕실과 상류 사교계 인사 중심의 명예혁명 이전 왕정복고기 희극에서 더 넓은 사회적 범주와 도덕적 의도를 담은 18세기 초 감상희극에 이르는 희극스타일의 변화를 어느 정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파퓌의 희극에서 드러나는 이런 변화는 에드워드 번즈(Edward Burns)가 지적하듯이 어떤 극작가 개인이 혁신한 결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212).

파퓌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신병모집관』(*The Recruiting Officer*, 1706)과 『멋쟁이들의 전략』(*The Beaux' Stratagem*, 1707)은 상류 귀족계급의 가치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반면 신중계급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이 힘을 얻어가던 18세기 초에 집필되었고,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왕정복고기 희극과 달리 런던 타운이 아닌 슈루즈베리(Shrewsbury)와 리치필드(Litchfield)라는 컨트리 타운을 배경으로 한다.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이전 왕정복고기 희극에서 컨트리는 거의 언제나 경멸적으로 다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배경의 변화 자체가 컨트리에 대한 작가의 태도 변화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Rothstein 131). 파퓌는 기존 지배계급인 귀족계급의 주 무대인 런던 타운이 아닌 컨트리로 무대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이 부상하는 신중계급의 기호와 감수성을 수용할 여지를 담은 물론 귀족계급이 지향하는 혈통 이데올로기 속에서 획일적으로 그려지던 성역할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잔 E. 와이먼(Susan E. Whyman)은 왕정복고기 이후 명예혁명을 거쳐 18세기 초엽까지도 성과 출생순서에 따라 가문구성원들에게 상속재산이 엄격히 제한된 결과 경제적으로 장자와 상속녀가 최대 수혜를 받았지만,

이들은 그에 상응해서 가문의 영광과 재산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큰 짐을 지게 되어 배우자선택에서 사랑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다(117-24). 이는 파콰의 『신병모집관』과 『멋쟁이들의 전략』에 나타난 중요한 제재가 된다. 당시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배우자선택에서 보다 자유로웠지만 더 이상 가문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런던 상류 사교계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현실에 처함으로써 장남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선택에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외관상 상류층 차남들에게 사랑에 기반한 자유로운 결혼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류층 생활유지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정략결혼의 불가피성이 대두되었고, 현실적으로 상류계급 차남들은 부유한 상속녀를 목표로 결혼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파콰는 『멋쟁이들의 전략』에서 상속재산이 없는 상류층 차남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모하는 생존전략을 극화하고 있다. 한편 상속녀의 경우에는 가문의 명예와 재산에 걸맞는 강요된 정략결혼을 하느냐 개인의 사랑에 기반한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더 빈번했으며, 파콰의 『신병모집관』은 상속녀의 이러한 현실을 극화하고 있다.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사회에서 젠트리와 시민계급 간에 명목상으로라도 유지되고 있었던 혈통이데올로기의 와해가 가시화되었지만, 가부장적 위계는 이후에도 영국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가치관이었다. 특히 결혼을 통한 가문의 토지재산 상속과 관련될 때, 남성상속자도 계급을 초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여성상속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선택권과 상속재산을 함께 지키는 것이 남성에게 비해 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파콰는 『신병모집관』의 실비아를 통해 이 문제를 희극적으로 탐구하며, 실비아의 자기 주도적 생존전략을 극화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체계 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파콰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신병모집관』을 중심으로 첫째 금권이 더욱 부각되고, 사회적 신분이동이 보다 용이해진 명예혁명 이후 귀족계급이 지향했던 명예 구현의 장인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신병모집과 신흥계급이 가치를 두었던 사랑에 기반한 결혼생활을 위한 배우자선택에서 돈의 역할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본 후, 둘째 이를 토대로

주된 가치체계가 변화를 겪고 있는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상속녀 실비아의 생존전략과 그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¹

II

『신병모집관』은 헌사(Dedication)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파퓌는 헌사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레킨산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게”(To All Friends round the Wrekin)라고 함으로써 헌정 대상이 귀족계급 후원자가 아님을 명시한다(41). 그는 자신이 신병모집관으로 활동했던 슈롭셔(Shropshire)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떠올리며, 그의 극에 인물을 제공해주었던 주민들의 온정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이 극을 바친다(41-42). 이것은 이미 이 극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퓌는 처음으로 런던을 떠나 그의 희극의 소재를 발견했으며, 새로운 부류의 관객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극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극이 당대 관객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배경이 런던이 아니라 이전 희극에서 사교계 한량이나 귀부인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조롱했던 컨트리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 불(John Bull)은 장소의 변화가 『신병모집관』에서 가장 분명하게 혁신적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국면이라고 주장한다(430).

파퓌는 이 극의 무대를 런던 타운이 아닌 컨트리로 옮김으로써 상류 귀족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혈통이데올로기와 명예혁명 이후 사회 주

1 2009년 발표한 줄고 「파퓌의 『신병모집관』 읽기: 명예혁명 이후 지배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에서 필자는 명예혁명 이후 영국사회의 지배가치관의 변화 및 당대 연극계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 후 파퓌가 『신병모집관』에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파퓌가 『신병모집관』을 통해 명예혁명 이후 지배이데올로기의 틀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상류 귀족계급 관객과 새로이 부상하는 신중계급 관객 양자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작가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돈, 징병과 관련된 문제나 하층민의 실제 삶과 같은 현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회의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영운, 『신병모집관』 117-38을 참조.

도계층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가던 신흥계급이 중요시했던 돈, 상호 동의에 기반한 계약, 개인적 사랑에 근거한 결혼 등의 가치 둘 다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² 이는 법정장면에서 “난 당신들 컨트리 젠틀맨은 위트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당신은 우리 타운 젠틀맨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소”(I knew that you Country Gentlemen want wit, and you know that we Town Gentleman want Moneys; 5.2.97)라고 하는 남장 실비아의 대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명예혁명 이후 강세를 보이는 신흥계급의 가치관에는 상류 사교계 인사들의 세련된 위트가 결합되어 있었고, 런던 타운 사교계에서는 귀족적 가치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품위를 유지할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현실에서 파퓰러 남장 실비아를 런던 시티도 타운도 아닌 컨트리로 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각기 돈과 위트로 대변되는 당시 신흥계급과 귀족계급의 가치를 전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 사회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에 필요한 신병모집과 가문 번성의 필요충분조건인 상속 및 배우자선택은 이 극에서 사회 지배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 극에서 파퓰러는 플럼(Plume), 카이트(Kite)의 신병모집과 워디(Worthy), 멜린다(Melinda)와 플럼, 실비아(Sylvia) 두 쌍의 남녀관계를 통해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징병과 결혼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흥

2 파퓰러의 『멋쟁이들의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한 줄고 「파퓰러의 『멋쟁이들의 전략』읽기: 컨트리가 런던을 대체하는가?」에서 필자는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 런던 타운, 시티 그리고 컨트리가 대변하는 가치의 대립, 대조 내지 상호관련성은 궁정중심의 상류 귀족계급과 궁정의 행태와 가치를 거부하는 신흥계급 간의 대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신흥계급의 영향력이 강화된 명예혁명 이후 영국사회에서 컨트리는 귀족계급과 신흥계급 중 어느 한 계급의 가치체계를 대변하거나 런던 시티나 타운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었다기보다는 양자의 가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시사되었고, 상류 귀족계급이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미덕의 구현이 가능한 영역으로 부상함으로써 런던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서영윤, 『멋쟁이』 171-96을 참조.

망성쇠와 무관하게 명예혁명 이후에도 사회계급의 표면적 위계는 유지되었으며, 출생은 계층분류의 규범이었다(Holderness 29). 귀족계급은 외관상이라도 징집과 전쟁을 명예구현의 장으로, 배우자선택을 권력 및 재산의 부계혈통 전승과 연결 짓는 봉건적 혈통이데올로기의 틀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토지재산이 창출하는 부를 지니고 있던 컨트리 젠트리와 새로운 사업으로 부를 창출하여 축적하기 시작한 런던 시티의 신흥계급이 영국의 새로운 부유층으로 부상하였고, 1680년대에 이미 백작이 상인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에 반대해 허구적인 귀족 혈통의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Hill 110). 결과적으로 명예혁명 이후 혈통에 의한 계급 간의 경계 및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상류 귀족계급의 가치들이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던 반면 돈, 가정, 개인의 사랑, 도덕성, 법, 계약 등에 가치를 두었던 신흥계급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파콰는 『신병모집관』에서 이런 지배 가치관의 변화를 극화하고 있으며, 돈의 영향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극에서 파콰는 외관상 플럼, 카이트의 신병모집 이야기와 플럼, 실비아와 워디, 멜린다 두 쌍의 배우자선택 이야기를 병치시켜 극화하고 있다. 이 두 액션은 신병이나 연인을 얻는데 있어서 재정적 책략과 결혼에 있어서 금전적 양도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Roper 169). 특히 이 극에서 신체 튼튼한 병사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상업적 거래는 결혼시장에서 배우자선택과 병치되는 유사점을 제공한다(Hughes 422).

스스로를 “명예로운 인사”(a Man of Honour; 1.1.45)라 칭하며, 신병모집을 위해 “어떤 젠틀맨 병사든 다른 이든 여왕폐하를 섬길 마음이 있다면 … 그들을 고귀한 하사관 카이트에게 보내주세요”(If any Gentlemen Soldiers, or others, have a mind to serve her Majesty . . . let them repair to the Noble Serjeant Kite; 1.1.45)라는 카이트의 장터 연설로 신병모집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기서 카이트가 신병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명예,” “고귀한,” “젠틀맨” 등의 어휘는 이미 그 적용대상이 격하되어 의례적으로 쓰이고 있다. 연설을 마치고 카이트가 병사를 모으려고 직접 돈을 건네며 “이것 말고 할 말이 없다네—여기 금화주머니가 있네 … 여왕폐하의 돈이라

네”(I have no more to say but this—Here’s a Purse of Gold . . . ’tis the Queen’s Money; 1.1.46)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 결국 징병의 해결책은 사회계급적인 의미가 내포된 명예 같은 추상적 자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돈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파퀴는 돈을 주고받는 카이트와 플럼의 신병모집과정을 통해 혈통에 근거한 위계와 가치부여로 유지되던 봉건적 사회에서 돈과 계약 관계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근대적 사회로 변하는 과정을 희화화한다.

1막 2장 플럼이 등장하여 위디를 만남으로써 배우자선택 이야기가 시작되고, 신병모집장교인 플럼이 실비아를 사랑하므로 일차적으로 두 이야기는 플럼에 의해 연결된다. 두 쌍의 남녀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 여성이 각각 받게 되는 상속이다. 귀족계급의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혈통이데올로기의 핵심은 가부장제와 장자상속이며, 장자 내지 상속자는 특권과 부담이라는 양날의 검에 놓였다. 명예혁명 이후에도 영국사회의 계급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기에 결혼, 배우자선택, 성 역할, 가치관 및 권력구조 문제 등은 분리불가능 할 정도로 얽혀 있다. 특히 상류 귀족계급이든 신흥계급이든 상속자의 배우자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 또는 결혼 이후의 행복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가문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애정 사이에 위치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Whyman III). 그러나 이 극에서 파퀴가 두 쌍의 남녀관계를 다루는 방식은 돈 자체를 조롱감으로 삼았던 이전 시대 희극작가들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도 벨린다나 실비아가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가문 내에서의 위치가 바뀌는 것에 의해 가장 분명히 입증되듯 그가 계급과 돈의 상관관계 및 중요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Bull 444).

런던 타운 사교계 인사든 컨트리 젠틀리든 간에 토지재산을 가진 당대 영국 지배계급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이었다. 장자의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만, 그럴 수 없는 상류층 차남들은 고정된 수입을 가져다주는 토지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신흥계급 출신들과 달리 스스로 사업 내지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므로 상류층 차남들은 대개 재산이 많은 상속녀와의 결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플럼이 우울해 보이는 위디에게 “자네 부친이 죽은 자들 가운데

데 일어나 당신의 토지재산을 되찾으셨나?”(Has your Father rose from the dead, and reassum'd his Estate?; 1.1.48)하며 농담을 건네는 건 당시 젠틀맨들에게 상속재산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시사한다.

불의 말대로 이 극에서 돈은 남성과 여성 둘 다를 모집할 수 있다(441). 난봉꾼 위디가 돈을 미끼로 경제적으로 열등한 멜린다를 정부(mistress)로 삼으려는 찰나에 그녀가 숙모의 사망으로 2만 파운드를 상속받게 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갑자기 상속을 받은 멜린다는 위디가 더 이상 그녀를 연인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재산상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돈은 두 사람의 관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플럼에게 “그녀를 정부로 얻으리라는 희망을 잃고, 난 행동을 바꾸어 … 지금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구애중이라네”(… despairing of ever gaining her for a Mistress, I have alter'd my Conduct . . . and court her now for a Wife; 1.2.49)라는 위디의 대사는 알버트 베르트하임(Albert Wertheim)의 주장대로 멜린다를 잠재적 정부에서 잠재적 배우자로 변모시킨 것은 경제력임을 드러낸다(181). 명예혁명 이후 금권에 의한 계급이동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경제력과 남녀관계를 고려할 때, 연애유희 파트너가 아니라 결혼배우자가 보다 중요하게 된다. 이는 사회 내에서 계급의 경계가 무너져감으로써 신흥계급은 계급 간 이동의 기회를 결혼을 통해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기존 상류 귀족계급에게 결혼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위디는 플럼에게 “한 때 유쾌하게 방랑하던 자네 친구는 아부하고, 사려있고, 낭만적이며, 한결같고 멋이나 부리는 맵시꾼으로 쪼그라들었다네”(Your once gay roving Friend is dwindled into an obsequious, thoughtful, romantick, constant Coxcomb; 1.1.48)라며 자신이 ‘낭만적 사랑’에 빠져 이전 왕정복고기 희극의 사교계 한량에서 연인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낭만적 사랑’은 남녀관계에서 계급의 초월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에 흔히 혈통이데올로기와 상치되며, 신흥계급이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물론 여기서 위디가 전시대 한량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일차적 원인은 돈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명예혁명 이후 남녀관계에서 성과 결혼 중 신흥계급이 중요시하는 후자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돈,

즉 경제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극에서 실비아는 갑작스런 숙모의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돈을 상속받은 멜린다의 경우와 달리 상속자인 오빠의 사망으로 가문의 상속자가 된다. 파궤는 상속녀가 되는 실비아의 경우를 통해 상속과 배우자 선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당시 상속녀가 된다는 건 상류층 재산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혼에서 본인의 선택보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밸런스 판사(Justice Ballance)가 실비아와 오빠의 사망에 대비시키며 나누는 다음 대사는 당대 지배계급 인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상속임을 환기시킨다.

밸런스. ... 부친께서 내게 토지재산을 남기셨기에 부친의 사망에 기뻐했지. 그런데 지금 난 내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의 상실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제 너를 내 가문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야만 하지. 그래서 네 재산의 증대가 너에게 참신한 사고와 새로운 전망을 주리라 기대한다.

실비아. 아버님, 정확히 순종하려는 저의 바람은 아버님께서 명을 분명히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밸런스. 네 오라비의 죽음은 너를 내 토지재산의 유일한 상속녀가 되게 할 것이며, 그건 지금부터 3, 4년 후에는 연간 12,000파운드에 이를 거야. 이 재산이 너에게 품위와 작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부여할 것이니 너는 스스로에게 정당한 가치를 두어야만 할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더 이상 캡틴 플럼을 염두에 두지 마라.

실비아. 아버님, 당신께서 빈번히 그 젠틀맨을 추천하셨습니다.

밸런스. 그래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비록 그를 단순한 사윗감으로는 충분히 좋아한다 해도, 내 토지재산과 가문의 상속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아...

BALLANCE. . . . I was pleas'd with the Death of my Father, because he left me an Estate, and now I'm punish'd with the Loss of an Heir to inherit mine. I must now look upon you as the only Hopes of my Family, and I expect that the Augmentation of your Fortune will give you fresh Thoughts and new

Prospects.

SILVIA. My desire of being punctual in my Obedience, requires that you wou'd be plain in your Commands, Sir.

BALLANCE. The Death of your Brother makes you sole Heiress to my Estate, which three or four Years hence will amount to twelve hundred Pound per Annum; this Fortune gives you a fair Claim to Quality and a Title, you must set a just Value upon your self, and in plain Terms, think no more of Captain Plume.

SILVIA. You have often commended the Gentleman, Sir.

BALLANCE. And I do so still, he's a very pretty Fellow; but tho' I lik'd him well enough for a bare Son-in-Law, I don't approve of him for an Heir to my Estate and Family. . . . (2.2.56-57)

벨런스는 가문의 재산에 상응하는 사위를 맞아야 한다는 계산으로 아들 사망 시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실비아에게 플럼은 단순히 사위감은 될 수 있지만, 상속녀의 남편감은 아니라고 선언한다. 벨런스가 실비아에게 상속재산에 걸맞는 작위와 자질을 갖춘 남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 파퓌는 명예혁명 이후 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도 외관상 봉건적 혈통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유지시키는 토대이므로 돈과 혈통의 결합을 통한 가문의 지위 유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당대 사회 주도계층의 현실을 극화하고 있다. “사랑과 의무가 다투게 하라 ... 내 뜻을 따르면 아버님이 비통하시게 되고, 또 그분 명예 복종해 내가 비탄에 잠기면, 한층 더 나쁘구나”(Make the Dispute between Love and Duty . . . follow my own Inclinations and break my Father's Heart, or obey his Commands and break my own, worse and worse; 2.2.57)라는 그녀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실비아는 상속녀로서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실비아가 상속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상속으로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우위를 무기로 쥐게 된 벨런스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선택의 자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상속녀에게는 통상적으로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보존하고 증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

겨졌고, 실비아 역시 예외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사랑과 가문의 명예라는 의무 사이에서 실비아는 상속재산을 지키면서 개인적 사랑도 성취하기 위해 전략을 짜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비아가 스스로 “그건 영혼의 편협성을 보여주기에 난 갇힌 사고를 지닌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테야”(I shou'd not like a Man with confin'd Thoughts, it shows a Narrowness of Soul; 1.3.53)라고 밝히듯이 그녀는 편협한 사고를 지니지 않은 남성을 배우자로 원하기에 당대 사회가 상속녀에게 부과하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생존전략을 짰다. 실비아는 배우자선택에서 돈과 사랑 둘 다를 갖기 위해 전략상 남장을 하고, 플럼의 군대에 징병되고자 함으로써 신병모집과 배우자선택 두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엮히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실비아가 택한 생존전략을 탐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의 정치체제 및 경제구조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상류 귀족계급과 후천적으로 자본을 축적한 신흥계급 간 상호 동의를 통해 근대시민국가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왕정복고 초기 상류층 한량들에게 위트는 오랜 귀족 가문의 교육과 문화습득을 통해 체득 가능한 자질로 신흥계급의 자본에 대한 귀족 혈통의 우위를 증명하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명예혁명 이후 사교계 한량들은 위트와 예법만으로는 상류 지배계급의 우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흥계급의 가치를 대변했던 돈과 도덕적 감수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류 지배계급 남성들과 비교할 때, 상류층 여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명예혁명의 결과인 권리장전은 절대 권력의 개념이 계약으로 전환했음을 선언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 성과 계급 때문에 여성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 이 사회에서 상류층 여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위트를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고, 생

물학적인 성을 변장함으로써 남성중심 위계 체제의 허를 찌르고, 경제적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Chappell 53). 이것이 바로 실비아가 택한 생존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에서 실비아의 남장은 단순한 희극적 장치가 아니라 명예혁명 이후 사회의 지배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여성의 사회적 종속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실비아의 남장은 단순히 남성의 옷을 입고 외관만 남성 행세를 하는 변장이 아니라 전쟁에서 영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신병모집에 응하여 남성의 성역할을 떠맡으려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종속적인 성역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비아는 상속녀가 된 후 플럼을 사윗감으로 거부하는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서 잭 윌풀(Jack Wilfull)로 남장을 하고 키티리로 향한다. 이 순간부터 남장 실비아는 극에서 신병모집 이야기와 배우자선택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확고히 극을 지배한다. 실비아의 남장이 극중에서 작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설득력을 갖는 것은 에릭 로스타인(Eric Rothstein)의 말대로 처음부터 파뤼가 실비아를 남녀 양성적 이중역할에 적합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그녀는 여성이지만 남자가 하는 일을 거의 더 하는 인물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135).

실비아는 솔직하고 활기찬 여성으로 이전의 왕정복고기 희극에서 보아왔던 상류사교계 여성들과 다른 부류에 속한다. 예를 들면 조지 에써지 경(Sir George Etherege)의 『멋쟁이』(*The Man of Mode*, 1676)와 윌리엄 위첼리(William Wycherley)의 『촌색시』(*The Country Wife*, 1675)에 등장하는 벨린다(Belinda)나 앨리시아(Alithea)는 상류 사교계의 위선을 간파한 위트있는 여성으로 내면적으로 참사랑에 가치를 두지만, 그것이 사교계에서 조롱감이 되거나 난봉꾼의 표적이 될지 몰라 외관상으로는 상류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예의범절, 점잖음, 정숙함만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감춤으로써 상류 귀족계급의 가치체제 내에 머문다. 반면 실비아는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종속적, 성적 이미지를 넘어서는 인물이다. 그녀가 남장을 하게 된 것은 결국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하는 정숙한 여성이라는 ‘가면’ 속에 갇혀 폐쇄된 세계에 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주어진 구속을 벗고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의도이다.

실비아와 멜린다의 병치를 통해 파키는 실비아가 구시대의 여성성에 안주하려는 멜린다와 달리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여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컨트리에서는 “모든 것에 화가 나고 기분 전환할게 아무 것도 없어서 … 그 공기를 견딜 수 없다니까” (. . . every thing to give the Spleen, and nothing to divert it . . . the Air is intolerable; 1.3.52)라며 실비아에게 자신이 마치 런던 사교계 귀부인인 양 쾌락 없는 컨트리의 단조로운 삶에 대해 불평하는 멜린다와 달리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교육을 받은 실비아에게 쾌락은 컨트리에서 향유가능한 자연적 즐거움이다. 무엇보다도 “난 음주와 사냥을 제외하면 내 부친과 함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시도한다면 내 모친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I can do every thing with my Father but drink and shoot flying; and I'm sure I can do every thing my Mother cou'd, were I put to the Tryal; 1.3.52)라는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실비아는 여성의 전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에 부여한 제한, 구속을 벗어나 남성에 견주어도 모자람 없는 행동력 있는 인물이다. 또한 멜린다와 실비아가 각각 상속으로 재산상 변화를 겪지만 배우자 감을 대하는 방식도 상반된다. 큰 재산을 얻게 되자 멜린다는 워디가 자신에게 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처벌로 질투를 유발하려 하지만, 상속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비아의 배우자선택 기준에는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멜린다가 기존 상류 사교계에서 통용되었던 남녀관계에 순응하는 여성이라면, 실비아는 스스로의 선택을 위해 행동하는 전략가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멜린다가 명예혁명 이전 상류 사교계 여성의 이미지에 머무는 반면 실비아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키는 ‘음주와 사냥을 제외하면’이라는 단서를 통해 실비아의 전략이 이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문의 명예와 세습재산에 대한 상속녀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아버지 밸런스와 연인 플럼은 돈과 배우자선택의 자유권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상속녀 실비아가 선택한 남장 전략이 성공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극이 공연되었던 18세기 초에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밸런스는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중요성을 갖게 된 상호 동

의에 가치를 두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준다. 밸런스는 실비아에게 상속녀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딸과의 관계에서 약속과 동의를 중요시한다. 밸런스가 플럼이 실비아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딸을 컨트롤로 보내면서 나누는 다음 대화는 이를 뒷받침한다.

밸런스. ... 내가 가기 전에 내게 엄숙한 약속 하나를 해주기를 바란다.
 실비아. 그걸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밸런스. 나의 동의 없이는 어떤 남자에게도 네 자신을 결코 처분하지 않을 거란 약속을 말이다.
 실비아. 약속드립니다.
 밸런스. 아주 좋구나, 그러면 내가 네 자신의 동의 없이는 너를 결코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마...

BALLANCE. . . . before you go, I expect you will make me one solemn Promise.

SILVIA. Promise the thing, Sir.

BALLANCE. That you will never dispose of your self to any Man, without my Consent.

SILVIA. I promise.

BALLANCE. Very well, and to be even with you, I promise, That I will never dispose of you without your own Consent. . . . (1.2.58)

여기서 아버지인 밸런스가 딸의 의지에 반하는 결혼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딸인 실비아 역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두 사람이 최소한 배우자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가부장적 부녀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상호 동의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냐 로슨 패리쉬(Sonya Lawson Parrish)가 지적했듯이 로크가 정치 권력을 주권자에게 위임하는 근대시민국가의 토대로 내세웠던 참된 동의는 단지 상호 권력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81). 실비아가 잭 월플로 남장을 하고 플럼 부대의 신병이 되고자 하는 전략을 통해 플럼이 그녀의 배우자이자 밸런스가 원하는 가문에 걸맞는 사윗감인지를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부녀간의 참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인 밸런스가 상호 동의와 약속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

물이기에 실비아의 남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양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극에서 ‘플럼이 어떤 인물인가?’하는 점은 실비아의 전략이 최종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파퀴는 실비아와 플럼의 구혼과정을 더 이전 극의 인습적인 남녀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Bull 442). 실비아는 적어도 결혼 문제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동의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럼은 남녀관계에서 상호 동의에 가치를 두고, 경직된 윤리의식에서 벗어난 솔직한 남성이며, 이 점에서 그는 실비아와 마찬가지로 명예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다.

플럼은 실비아를 사랑하지만 첫 등장부터 신병모집과정에서 여성들과 희롱이나 하는 바람둥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방탕하다기보다는 진솔한 감정을 외관이나 의식보다 우선시하는 인물이다. 그는 남녀관계에서도 결혼이라는 의식보다 사랑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인물로, 워디에게 “난 실비아를 사랑해. 그녀의 솔직하고, 관대한 성격을 존경하지”(I love Silvia, I admire her frank, generous Disposition; 1.2.50)라고 털어놓는다. 여기서 플럼이 사교계에서 평판을 유지하면서 여성들과의 연애유희를 일삼았던 명예혁명 이전 왕정복고기 희극의 난봉꾼 한량들과 달리 연인에 대한 사랑 자체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플럼과 워디의 대사는 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플럼. … 만약 우리가 예비적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실비아와 내가 함께 잠자리를 갖기로 한 번 동의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네. 하지만 그녀는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고, 난 결혼식 전에 첫날밤을 치르려 했었어—우리는 합의할 수가 없었어. 그녀는 당돌하고 완강한 명칭이어서 플럼을 위해 그걸 지키려고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처녀성을 잃지 않으려는 거야.

워디. 그러나 자네는 다른 조건으로 결혼할 의향인가?

플럼. 만약 내가 한다면, 난 결코 어떤 다른 조건으로 결혼하지 않을 걸세. 내가 30분 동안 그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를 알 때까지 난 평생 동안 내 자신을 한 여인에게 결코 구속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네….

PLUME. . . . 'Tis true, *Silvia* and I had once agreed to go to Bed together, cou'd we have adjusted Preliminaries; but she wou'd have the Wedding before Consummation, and I was for Consummation before the Wedding—We cou'd not agree, she was a pert obstinate Fool, and wou'd lose her Maidenhead her own way, so she may keep it for *Plume*.

WORTHY. But do you intend to marry upon on other Conditions?

PLUME. . . . I'll marry upon no Conditions at all, if I shou'd, I'm resolv'd never to bind my self to a Woman for my whole Life, till I know whether I shall like her Company for half an Hour. . . . (1.2.50)

실비아와의 관계에서 마치 플럼이 성적 만족에 결혼의 전부를 두는 양 비치지만 사실 그의 말은 미사여구를 배제한 솔직한 사랑의 근본을 드러내는 것이며, 적어도 그에게는 사랑을 빙자한 재산에 대한 탐욕도 없다. 이극에서 이미 신흥계급의 돈이 중요한 가치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컨트리 타운은 런던 상류사교계에서 기존 지배계급이 내세우는 가치관에 따라 외관상 여성의 명예로 치부되는 정조에만 가치를 두는 양 하고 있다. 워디는 플럼이 실비아와 결혼식 이전에 합방한다면 비난받을 것임을 지적하자 플럼은 “나는 그런 이유로 컨트리 타운을 싫어한다네—만약 자네의 타운이 실비아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생각을 한다면, 전소될 만하지—난 실비아를 사랑한다네. 그녀의 솔직하고 관대한 성격을 찬탄하지”(I hate Country Town for that Reason—If your Town has a dishonourable thought of *Silvia*, it deserves to be burnt to the Ground—I love *Silvia*, I admire her frank, generous Disposition; 1.2.50)라고 함으로써 개인의 사랑에 가치를 두는 척하면서도 외적인 형식에 매달리는 컨트리 타운의 경직된 윤리관 내지 편협성을 비판한다. 그러나 파콰는 바로 플럼이 “요컨대, 내가 장군이 되면, 그녀와 결혼할걸세”(In short, were I once a General I wou'd marry her; 1.2.50)라고 덧붙이게 함으로써 그 역시 명예나 평판을 추구하는 기존 지배계급의 가치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아님을 드러낸다.

플럼은 명예의 구현장인 전장을 중형무진하는 남성이다. 그러나 그가 실비아에게 “내 직의 명예를 걸고 맹세컨대 내가 어떤 위험을 계속하든지 간에 그건 내 자신이 그대의 찬탄을 더 받을 만하도록 만들려는 희망을 갖고 그러는 거요”(I swear . . . by the Honour of my Profession, that whatever Dangers I went upon, it was with the Hope of making my self more worthy of your Esteem; 2.1.55)라고 피력하듯이 그가 극 중에서 누구보다도 명예의 선봉에 서도록 한 것은 바로 실비아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플럼이 명예혁명 이후 사회 주도계층으로 부각된 신흥계급이 가치를 두는 개인의 사랑을 상류 귀족계급이 가치를 두는 명예보다 우선 시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사실 위다가 플럼에게 “우리가 막 그들의 품에 뛰어들려는 찰나에 재산이 그들의 무릎으로 떨어져 오만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지 . . . 그들은 콧방귀 끼고, 춤추며 즐행랑쳤지”(. . . just as we were upon the point of leaping into their Arms, Fortune drops into their laps, Pride possesses their Hearts . . . they snort, kick up their Heels, and away they run; 3.1.64)라며 사랑하는 여인이 구애를 거의 받아들이려는 순간 큰 재산을 상속받고 떠났음을 한탄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명예혁명 이후 신흥계급의 경제력이 혈통이데올로기를 점차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배우자선택과 밀접히 연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럼은 “난 관대하고 온화한 작업복 입은 실비아는 경탄하지만, 재산을 지닌 거만하고 경멸하는 실비아는 무시하지”(. . . the generous good-natur'd Silvia, in her Smock I admire, but the haughty scornful Silvia, with her Fortune, I despise; 3.1.65)라고 선언하며 사랑에 대한 돈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호히 거부한다. 여기서 분명 플럼은 인간 내면에 가치를 두는 도덕적 잠재성을 지닌 남성으로 사랑의 본질에 가치를 두고, 재산보다는 사랑하는 자연인 실비아와의 결합을 원한다. 무엇보다도 플럼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그가 사교계에서의 평판 유지에 힘썼던 명예혁명 이전 희극인 에쎌지의 『멋쟁이』나 위첼리의 『춘색시』에 등장하는 도리망(Dorimant), 하코트(Hacourt), 호너(Horner)같은 한량들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 남성임을 드러낸다. 플럼은 이전의 희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진솔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남성으로 말로 꾸미려고

하지 않고, 소신을 밝힌다. 한편 플럼을 사랑하지만 결혼에의 순결을 중시하는 실비아는 명예혁명 이후 사회 주도계층으로 보다 확고히 자리 잡은 중산층의 순결관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녀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음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는 상호 동의가 남녀관계의 토대가 됨을 보여줌으로써 결혼을 계약으로 보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명예혁명 후 영국에서 동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문제가 되었다. 사회계약론에서 로크는 통치자와 통치받는 이들 사이의 상호 동의에 의한 합의 관계가 모든 정치 체제 이면에 있는 추진력이라고 보았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양자로부터의 상호 동의가 결혼의 계약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사함으로써 동의는 국가 주권이라는 정치적 영역에서 결혼이란 사회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Parrish 70-71).

4막 1장은 플럼에 대한 실비아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장 실비아는 로즈(Rose)를 주지 않으면 플럼 부대의 신병이 되지 않겠다며 로즈에 대한 플럼의 의중을 떠보지만, 플럼은 기꺼이 로즈를 포기한다. 그는 “일부 인사들은 이걸 계략이라 부르지 모르지만, 난 전략이라 칭하지”(Some People may call this Artifice, but I term it Stratagem; 4.1.81)란 말을 통해 자신이 로즈에게 선물을 주고, 약속의 말을 하는 것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병모집 전략임을 시사한다. 플럼이 처음으로 남장 실비아 앞에서 “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난봉꾼이 아니라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형식상 절차를 종교로 오해하듯이 내게서 방탕함으로 오해하는 자유로운 태도를 지닌 걸세”(I am not that Rake that the world imagines; I have got an Air of Freedom, which People mistake for Lewdness in me, as they mistake Formality in others for Religion; 4.1.82)라며 자신의 자유추구를 방탕함으로 오해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플럼의 고백은 실비아의 남장과 더불어 이 희극이 이전 왕정복고기 희극과는 다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플럼은 외관상 왕정복고기 초기 희극의 난봉꾼 한량과 비슷한 언행을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플럼은 혈통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위트로 외관과 실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명예혁명 이전의 난봉꾼들과 달리 실재가 지닌 가치로 초점을 옮긴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녀로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야 하는 실비아도 플럼의 내면 가치를 인정하기에 그를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꿔는 경찰이 로즈를 능욕한 혐의로 남장 실비아를 체포하여 밸런스 앞에서 심문 받게 하는 재판장면에서 명예혁명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법, 상호동의, 계약, 도덕에 기초한 개인의 사랑 등이 징병, 배우자선택,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플럼과 밸런스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수용한 남성이기에 실비아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음을 재차 입증한다. 밸런스는 남장 실비아의 처벌을 주장하는 동료 스케일(Scale)과 달리 결혼한 관계임을 피력하는 로즈와 결백을 주장하는 남장 실비아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는 균형 잡힌 태도로 심리를 진행한다. 합법적 결혼 여부를 묻는 밸런스에게 실비아는 남녀관계에서 그녀가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다:

결혼식을 의미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하늘 아래 어떤 두 사람도 그 의식에서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성사로 여기고, 다른 이들은 편의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장난으로 여기니 말입니다.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선 그건 가장 성스러운 겁니다—아시겠지만 우리의 검이 우리의 명예니 그걸 놓고 영웅이 먼저 뛰어넘고 아마존 여전사가 따르듯이—사내가 뛰어들고, 계집이 따르고, 북을 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이니 의식은 간결합니다.

He means Marriage, I think,—but that, you know, is so odd a thing, that hardly any two people under the Sun agree in the Ceremony; some make it a Sacrament, others a Convenience, and others make it a Jest; but among Soldiers 'tis most Sacred—our Sword, you know, is our Honour, that we lay down, the Hero jumps over it first, and the Amazon after—leap Rogue, follow Whore, the Drum beats a Fuff, and so to Bed; that's all, the Ceremony is concise. (5.2.96)

여기서 남장 실비아는 참된 결혼은 경제력, 계급, 법 같은 외적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상대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한다. 실비아는 남장 가면을 쓰고 남녀의 참된 결합만이 사랑

에 기반한 결혼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함으로써 플럼과의 결혼에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상속녀로서 순종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실비아의 남장은 가부장적 권위나 지배에 대한 도전 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는 이 극의 실비아도 왕정복고기 희극의 위트있는 여주인공들은 늘 그들의 적절한 종속적 위치로 되돌아갔고, 남성적 권위에 대해 제기한 그들의 도전은 진압되었다고 한 팻 질(Pat Gill)의 비판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195).

재판 과정에서 잭 윌플이 실비아임을 감지한 밸런스는 징병 책임자인 플럼을 소환함으로써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게 되고, 마침내 징병, 상속, 돈, 배우자선택 문제가 합쳐지게 된다. 밸런스는 플럼에게 사정을 밝히지 않고, 100 파운드를 대가로 주고 남장 실비아를 제대시키려 한다. 플럼은 신병 한 명 당 일종의 모집비를 받는 신병모집관이지만, “나리, 단 한 푼도 거절합니다. 전 100파운드보다 나리에 대한 의무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Not a Penny, Sir; I value an Obligation to you much above a hundred Pound; 5.6.107)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돈에 절대적 의미를 두지 않고 인간 내면에 더 비중을 두는 인물임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봐, 아마도 자네는 자네의 관대함을 후회하지 않을 걸세”(Perhaps, Sir, you shan't repent your Generosity; 5.6.107)라는 밸런스의 반응은 플럼의 내면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에서 돈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비아는 부친 밸런스가 자신이 잭 윌플임을 간파하자 용서를 빌고, 부친에게 내면 가치를 인정받은 플럼과의 결혼을 허락받는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과 배우자선택권을 함께 갖고자했던 실비아의 전략은 성공한다. 하지만 파콰는 플럼의 다음 대사를 통해 실비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토대는 바로 플럼이 명예혁명 이전의 위트 있는 난봉꾼 한량들과 달리 새 시대에 맞는 가치를 지닌 남성이기 때문임을 재확인한다:

... 내 자유와 장군이 되려는 소망이 내게는 당신의 연 12,000파운드 보다 훨씬 더 소중한요. 그러나 아가씨, 당신의 사랑에 내 자유를 버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에 내 야망을 양보하오. 군의 수장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당신 발아래

복종하는 것이 더 위대하니 말시오.

. . . my Liberty and hopes of being a General are much dearer to me than your twelve hundred Pound a Year, but to your Love, Madam, I resign my Freedom, and to your Beauty, my Ambition; greater in obeying at your Feet, than Commanding at the Head of an Army. (5.6.108)

실비아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랑 때문에 자유와 장군이 되려는 명예 추구를 버리고 결혼해 정착하겠다는 플럼을 통해 파키는 신혼계급이 가치를 두는 세목 중에서 돈보다는 낭만적 사랑과 그 결실인 결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문의 명예와 세습재산에 걸맞는 사윗감을 원했던 밸런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플럼의 내면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상속녀인 실비아와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부부애에 기반한 가정에 가치를 두는 신혼계급의 소시민적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사랑과 명예 사이에서 결국 사랑의 승리를 인정함으로써 명예를 더 중시하는 기존 지배계급의 세계관에서 멀어진다.

명예혁명 이후에도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가치체계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었고, 실비아 스스로도 내재된 한계를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과 배우자선택의 자유를 모두 지니려는 실비아의 생존전략이 성공하는 것은 아버지 밸런스와 연인 플럼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수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밸런스는 명예혁명 이후의 가치관을 내재한 사회계약론의 틀 안에 있는 인물로 가부장적인 절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아버지이고, 플럼은 도덕성의 토양인 인간 내면에 가치를 두는 인물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사랑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 모두 아버지로서, 배우자로서 각각 딸, 연인인 실비아와의 관계에서 상호 동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구현한 남성이라는 점이 실비아의 전략이 성공하게 된 토대임은 부인할 수 없다.

IV

명예혁명 이후에도 결혼으로 가족들을 결속시키는 전통적 패턴은 사회 위계를 유지시켰고, 누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지배하는 아주 분명한 관례들이 있었다. 아내가 남편의 신분을 취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더 낮은 계급의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만연했던 이중잣대에 의해 여성이 그녀의 집안보다 신분이 아래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Speck 105).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병모집관』에서 파궤는 여주인공 실비아를 통해 명예혁명 이후 주된 가치체계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에서 배척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상속녀의 생존전략을 극화한다.

사회 내에서 계급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기존 지배계급은 결혼을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상속녀가 된 실비아는 가문의 세습재산과 배우자선택권을 맞바꾸어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실비아는 외관상 혈통에 근거한 계급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혁명 이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경제력을 수중에 넣으면서도 개인의 사랑과 가문에 대한 의무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남장은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감인 플럼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고, 그가 가문의 세습재산에 걸맞는 명예를 지닌 인물임을 입증하여 부친의 동의를 얻어 사랑과 상속재산을 다 지키기 위해서 택한 상속녀 실비아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에서 파궤는 신병모집과정을 통해 기존 지배계급이 가치를 두는 명예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희화화하고, 멜린다와 실비아가 상속을 받은 후 워디와 플럼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신흥계급이 가치를 두는 결혼도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극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보다는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 플럼의 진심을 확인하는 남장 실비아를 통해 파궤는 돈으로 인해 가치가 손상된 명예나 결혼의 부정적인 면을 희석시키고, 긍정적으로 양자를 수용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 극에서 실비아는 남녀 양성적 인물로 제시되지만, ‘음주와 사냥’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통해 제한된 의미에서만 당대 여성의 수동적 성역할을 벗어나는 인물

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배우자선택에서도 상속재산을 지킬려면 부친 뜻에 거슬러 사랑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인의 진심을 확인하고, 부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 극에서 상속녀 실비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내에서 여성의 종속성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녀에게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비아의 생존전략이 성공하는 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연인이 각각 명예혁명 이후 새 시대의 가치를 수용한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인 밸런스는 가부장적인 절대권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녀간에도 상호 동의를 중요시하는 사회계약론의 틀 안에 있는 인물이며, 연인인 플럼은 도덕적 잠재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랑에 토대를 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수용한 남성이다. 파퀴는 극의 마지막을 플럼의 노래로 끝냄으로써 이 극이 실비아의 감행한 남장 전략의 성공보다는 새 시대에 맞는 남성상을 형상화한 플럼의 변화에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플럼을 결혼으로 이끄는 상속녀 실비아의 전략은 외관상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치가 종속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봉건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명확한 한계를 담고 있다.

한성대학교

주제어: 명예혁명, 위계, 배우자선택, 상속, 상속녀

인용문헌

서영윤. 「파퀴의 『멋쟁이들의 전략』 읽기: 컨트리가 런던을 대체하는가?」, 『밀턴과 근세영문학』, 25집 2호, 2015, pp. 171-96.

———. 「파퀴의 『신병모집관』 읽기: 명예혁명 이후 지배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18권 1호, 2009, pp. 117-38.

Brown, Laura. *English Dramatic Form, 1660-1760: An Essay in Generic History*. Yale UP, 1981.

- Bull, John. "Sir John Vanbrugh and George Farquhar in the Post-Restoration Age." *A Companion to Restoration Drama*, edited by Susan J. Owen, Blackwell, 2001, pp. 429-45.
- Burns, Edward. *Restoration Comedy: Crises of Desire and Identity*. Macmillan, 1987.
- Chappell, Julia A. "The Real and the Imagined in *The Book of Margery Kempe* and *Moll Flanders*." *Spectacle, Sex, and Property in Eighteenth-Century Literature and Culture*, edited by Julia A. Chappell and Kamille Stone Stanton, AMS Press, 2015, pp. 53-68.
- Collier, Jeremy. *A Short View of the Immorality and Profaneness of the English Stage*. 1698. *Restoration and Eighteenth-Century Comedy*, edited by Scott McMillin, W. W. Norton, 1973, pp. 391-404.
- Combe, Kirk. "Rakes, Wives and Merchants: Shifts from the Satirical to the Sentimental." *A Companion to Restoration Drama*, edited by Susan J. Owen, Blackwell, 2001, pp. 291-308.
- Farquhar, George. *The Recruiting Officer*. 1706. *The Complete Works of George Farquhar*, edited by Charles Stonehill, vol. 2, Gordian, 1967, pp. 41-111.
- Gill, Pat. "Gender, Sexuality, and Marriage." *The Cambridge Companion to English Restoration Theatre*, edited by Deborah Payne Fisk, Cambridge UP, 2000, pp. 191-208.
- Hill, Christopher. *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The Making of Modern English Society, 1530-1780*. Pantheon Books, 1967.
- Holderness, B. A. *Pre-Industrial England: Economy and Society from 1500 to 1750*. J. M. Dent & Sons, 1976.
- Hughes, Derek. "Body and Ritual in Farquhar?" *Comparative Drama*, vol. 31, no. 3, 1997, pp. 414-35.
- Locke, John. "From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1713. *Restoration and Revolution*, edited by William Myers, Croom Helm, 1980, pp. 187-202.
- Parrish, Sonya Lawson. "'Obtain but Their Consent': Agency and Female Speech in Eliza Haywood's *Love in Excess*." *Spectacle, Sex, and Property in Eighteenth-Century Literature and Culture*, edited by Julia A. Chappell and Kamille Stone Stanton, AMS Press, 2015, pp. 69-82.
- Perry, Henry Ten Eyck. *The Comic Spirit in Restoration Drama*. 1925. Russell & Russell, 1962.
- Roper, Alan. "The *Beaux' Stratagem*: Image and Action." *Farquhar: The Recruiting Officer and The Beaux' Stratagem*, edited by Raymond A. Anselment, Macmil-

- lan, 1977, pp. 158–77.
- Rosenthal, Laura J. “Masculinity in Restoration Drama”. *A Companion to Restoration Drama*, edited by Susan J. Owen, Blackwell, 2001, pp. 92–108.
- Rothstein, Eric. *George Farquhar*. Twayne, 1967.
- Speck, W. A. *Society and Literature in England 1700–60*. Gill and Macmillan, 1983.
- Wertheim, Albert. “Bertolt Brecht and George Farquhar’s *The Recruiting Officer*.” *Farquhar: The Recruiting Officer and The Beaux’ Stratagem*, edited by Raymond A. Anselment, Macmillan, 1977, pp. 178–90.
- Whyman, Susan E. *Sociability and Power in Late Stuart England: The Cultural Worlds of the Verneys 1660–1720*. Oxford UP, 1999.



Abstract

Survival Strategies of an Heiress after the Glorious Revolution Revealed through Farquhar's *The Recruiting Officer*: Silvia's Disguise and Limitation

Yeong-yoon SEO
Hansung University

The Glorious Revolution signaled the end of divine right kingship and changed the ideological frame. Hierarchy, however, was apparently safe, and birth remained a norm of social classification. Heirs and heiresses could not have a choice in mate selection. Besides, heiresses had to survive in a patriarchal system. Through Silvia in *The Recruiting Officer*, Farquhar presents the survival strategies of an heiress in post-Revolution English society. Silvia disguises her biological sex and outwits the patriarchal system in order not to lose her inheritance and love. She combines the two actions of the play—enlisting soldiers and getting spouses—by disguising herself as Jack Wilfull. Silvia finally achieves her goals, but she could not successfully gain them if her father, Justice Balance, and her lover, Plume, were not appropriate to the new ideological frame. Farquhar ends the play with Plume's song, and Silvia's success is overshadowed by the faithful lover, Plume.

Key Words

Glorious Revolution, hierarchy, mate selection, inheritance, heiress

Submitted, 31 Oct. 2018

Review Completed, 18 Dec. 2018

Accepted, 19 Dec. 2018

к с і